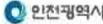


		<b>보도자료</b>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	
		배포일자 2021년 4월 28일(수) 총 4매			
담당 부서 부대이전개발과	담당자 • 캠프마켓개발팀장 김인식 ☎440-4521 • 담당자 김경미 ☎440-4522				
사진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	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**인천시, 캠프마켓 운동장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개방**  
 - 캠프마켓 단계적 오염토양 정화 및 시민 개방 추진 -  
 - 보행매트, 잔디·수목 식재 “안전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시민 맞이”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부평구 캠프마켓 내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됨에 따라 B구역 1단계 정화가 완료된 운동장 부지(32,800㎡)를 5월 3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.

앞서 시는 2019년 12월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반환받은 캠프마켓 A, B구역(210,765㎡) 중 B구역(93,000㎡)을 2020년 10월 처음으로 시민에게 개방한 바 있다. 이와 함께 안전한 시민 공간 확보를 위해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동시 진행하며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.

이번에 추가로 시민에게 열리는 공간은 3단계에 걸쳐 정화작업이 진행 중인 B구역 중 1단계 구역으로, 개방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다.

이번 개방을 위해 인천시는 안내판, 보행매트 등을 설치하고 부평구청과

협업을 통해 철쭉 등 관목 4,000주를 식재하고 나비의자 등을 설치했다. 이와 함께 4월 말까지 운동장 부지 잔디식재와 보행매트 설치 등 환경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,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.

향후 2,3단계 정화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시민이용 공간을 점차 확대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휴식·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류윤기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“캠프마켓 이용불편 개선사항 등 소중한 의견은 캠프마켓 입구에 비치한 소통박스에서 상시 접수 중이므로 지속적으로 시민이용 시설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”이라며 “8월에는 캠프마켓 인포센터를 개소해 시민소통 공간 및 전시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관계부서 협업을 통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캠프마켓 내 오염토양 정화는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으며 A구역은 2022년, B구역은 2021년까지 완료하는 일정이다.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4월 26일 B구역 2단계 오염정화 작업에 들어갔다.

<붙임> 캠프마켓 운동장 부지 환경개선 사진 및 위치도

《캠프마켓 운동장 부지 환경개선 사진》



철쭉 등 관목 식재, 나비의자 설치



운동장 잔디 식재

